

‘성공스토리 만드는 중’ ... 전북도 세일즈 외교활동 점검

해외시장 · 우호협력 경제 영토 확장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해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북도정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쌓을 것을 천명한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이래 미국과 일본 등지에 농수산물 판로 개척 등 전북 경제의 영토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면서 성공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는 전북도의 세일즈 외교활동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민선 8기 전북도정은 지난 1985년 민선자치시대가 개막한 이래 전북도 지방정부 도백으로는 유일하게 행정과 사법, 입법 등 3개 기관을 두루 거치며 그 누구보다 협치를 통한 전북의 변화와 성장을 바라왔던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면서부터 혁신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다.

김관영 도정은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회복을 도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기업유치와 기업애로 해소,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도지사가 직접 챙기겠다며 조직도 개편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자신도 ‘세일즈맨’으로 변신할 것임을 자처하며 도내 대기업을 비롯해 기업들의 투자 신호만 파악되면 열 일을 제쳐놓고 달려가기 일수다. 이같은 도지사의 세일즈 활동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지난해 첫 미국 LA 이어 일본서 굵직한 성과 거둬 내달 중 우호 국가 · 지역과 협력 다지러 출장 계획 미 · 일 한인상 의와 경제협력 맺어 거버넌스 구축 기업 · 국제행사 유치 등 파트너십 발취... 시너지 기대 일본 도레이 본사 사장 만나 전북도에 투자 직접 제안 도·가고시마현, 지사급으로 20년만에 만나 협력 논의

지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올 들어서도 김 지사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우호관계를 늘리고 협력관계를 더욱 다지기 위해 다음달 중에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미국 최대 규모인 LA 한인축제와 농수산엑스포 현장을 달려간 김

관영 지사는 전북의 우수 농수산물 판매 인지도도를 높이는 한편 미국 내에 유통시키기 위한 첫 해외 시장 개척 활동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미국 내 한국 농수산물 유통체인인 한남체인과 1천만달러 수출계약 업무협약을 맺고 전북산 농수산물

취급 물량 확대와 신규 수출 농수산물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 한남체인은 1988년 LA에 문을 연 한국 농수산물 전문 유통업체로 미국 캘리포니아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7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매출액은 약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미국 최대 한국 농수산물 유통체인 업체와의 수출 확대 업무협약 체결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982년 미국 동부에서 설립돼 현재 미국 14개 주에 걸쳐 79개 매장과 5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미국 최대 한국 농수산물 아시아 식품 슈퍼마켓 대형 체인점인 마마트와 협약을 맺은 것이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마마트에 전북산 우수 농수산물 품이 입점하면 해외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들과는 개별 수출 확대 업무협약 맺은 데 이어 전북경제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LA한인상공회의소와 파트너십을 발휘하기로 했다. LA한인상공회의소 장진혁 회장 등 임원진들은 김관영 도지사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미국에 대한 전북 생산품

의 수출 및 유통 확대, 이를 위한 수출안과 정보제공, 미국 기업의 전북 투자를 알선하고 국제 행사와 전북 유치를 위한 협력자로 나설 예정이다.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김 지사는 익산에 글로벌 김치공장을 세우고 이곳에서 생산한 김치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풀무원 미국 현지법인인 풀무원USA 본사를 방문해 김치시장의 점유율 등 경제 추이를 따져 보며 전북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과 가능성을 엿봤다. 김관영 도지사의 세일즈 외교활동은 지난해 12월 일본에서도 더욱 빛이 났다. 새만금 유치 1호 해외 기업인 도레이 본사 회장을 직접 만나 투자 제안을 하는가 하면 우호협력관계를 맺은 가고시마현 지사와 공식 간담을 갖고 지사급으로는 20년만에 공공의 교감회를 통한 양 지방정부간 상생 발전을 논의해 양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지사는 한국법인 도레이첨단소재(주) 이영관 회장과 함께 도레이 본사에서 낮카쿠 아키히로 사장을 만나 새만금으로의 투자 요청을 직접 건넸다. 도레이가 증설투자 동향을 입수한

뒤 이를 새만금산단에 유치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 것이다. 또한 전북의 농수산물품이 태국 제1위 대기업을 일본 법인인 OFJ Japan사와 재일한국농수산물연합회와 일본 현지 유통망을 통해 일본 전역에서 판매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미국 LA 한인상공회의소,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일본 동경 한국상공회의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한 교류와 함께 국제 행사와 전북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상공인과의 협력 관계 구축으로 전북생산품의 수출 확대와 2024년 세계한인대회 유치를 이뤄내겠다는 김관영 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농수산물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도지사가 세계 시장을 향한 세일즈맨의 선봉에 서겠다고, 전북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어떠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해외 시장개척을 통한 농수산물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사랑한다... 미안하다... 널 잊지 않을게...”

전북지역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차례 도내 희생자 7명 중 5명의 유가족들 참석 손수 만든 음식으로 차례상 차려... 분위기 엄숙 내달 5일 참사 100일 맞아 풍납문광장서 추모제



전주풍납문광장 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 설날 합동 차례가 열린 지난 22일 유가족들이 차례를 지내고 있다.

유족은 이날 치러진 설날 합동 차례에 참석했다. 이들의 차례상은 여느 명절 차례상과는 달랐다. 배추전부터 갈뚝 등 희생자들이 생존했을 때 유난히도 좋아하던 음식들로 차려졌다. 유가족들이 모두 손수 만든 음식이었다. 김수진 양의 어머니 조은하 씨는 이날 합동 차례에서 유족 대표로 고인에 대한 편지를 낭독했다. 조 씨는 “사랑하는 내 이쁜딸 이렇게 빨리 엄마와 오빠 곁을 떠날

줄 알았다라면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만들걸 그랬다”면서 “너와의 추억을 더 많이 만들 걸 하는 아쉬움 뿐이다”고 슬퍼했다. 한참 직접 써온 편지를 읽어가던 순간 참아오던 눈물은 쏟아졌고, 다른 유족들도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 감은 채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이날 합동 차례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후 시

민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헌화를 하며 합동 차례는 끝이 났다. 문성철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정부는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회피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 앞에 사과하는 등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월 5일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이해 전주풍납문 광장에서 추모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준비 총력전”

김관영 도지사, “새 아이디어 바탕 특례 발굴 집중”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북형 특례를 발굴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못지않게 실행이 중요하므로 협약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자”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간 체결된 협약의 추진상황과 이행성과를 점검토록 당부했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는 2023년도 회의의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의정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실국별로 미리 설명드리고 소통할 것”을 권장했다. /김재훈기자



“전북자본센터 관건선거 의혹” 재판 연기

내달 1일로... 변호인단 자료검토시간 확보 차원서 피고인, 조직적 범행 부인 전망... 범리다툼 예고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건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및 송 전 지사의 측근 등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송 전 지사의 측근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치열한 범리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단체 경선운동 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경진 여사 등 1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오는 2월 1일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1차 공판은 지난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판기일 연기는 변호인단의 자료검토시간 확보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이 제시한 조서 등 증거와 기록 등의 분량은 총 32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천페이지 분량의 서류다. 피고인도 14명에 달하고 각자 선임한 변호인만 해도 대형로펌 등 다양하게 포진돼 기록복사 시간에도 쫓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인단은 당초 1차 공판을 이를 앞둔 지난 18일에서야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뤄진 조직

적 관건선거 의혹의 쟁점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오 여사와 송 전 지사의 전 비서실장 3명 등 측근 등이 조직적으로 지사에 의해 진행됐는지 여부다. 검찰은 송 전 지사의 부인인 오 여사와 송 전 지사의 측근 등이 주도해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한 후, 전북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관리당원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조사에서 전 자원봉사센터장과 전 도청 공무원 등은 송 전 지사의 측근들로부터 부탁 또는 지시를 받고 당원을 모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송 전 지사의 측근 등은 이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조직적 범행 여부를 부인하고, 실제 이러한 행동이 송 전 지사가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과 관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

민주 “尹정부, 민생 무지에 수사 외길... 輿는 윤심 경쟁만”

“고물가 · 난방비 인상 · 고용 한파에도 민생 무지 민생 보이지 않아...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설 밤심을 두고 “정부·여당의 눈에는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당 대표가 제안한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 외사들 제차 강조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생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정부·여당은 오직 윤석

열 대통령의 발심수를 덮으려는 마타도여와 당권을 잡아보겠다는 ‘윤심’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설은 계속되는 고물가에 병절 민심이 조출해졌고, 부쩍 오른 난방비 걱정 때문에 가족들이 모였지만 마음껏 보일러도 울리지도 못한 집

이 부지근수”라며 “애교된 복극 한파와 눈 걱정이 더해 내민 출근길 걱정까지 시민들은 걱정, 걱정, 걱정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난방비 걱정으로 서민들은 한파에도 보일러 온도를 높이지 못하고 뚫뚫한 의무를 깨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뉴스

아울러 “젊은이들은 커브 한 잔도 사치로 여기며 고용 한파를 버티고 있다”며 “계속되는 고용 한파에 고립·은둔한 채 살아가는 청년이 6만 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한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생 무지’ ‘수사 외길’ 윤석열 정부”라며 “민주당은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민생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뉴스